

『老子』 ‘正’, ‘奇’의 부가 의미 고찰

이소동*

〈目 次〉

1. 서론
2. 단독구조에서 ‘正’, ‘奇’의 의미
3. 대립구조에서 ‘正’, ‘奇’의 의미
 - 1) “以正治國, 以奇用兵”(57장)
 - 2) “正復爲奇”(58장)
4. 결론

1. 서론

『老子』에서는, 현세에서 진리로 규정되어 의무적으로 혹은 도의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나 제도, 도덕 등에 대해 종종 좋지 않은, 심지어 금기시해야 할 것으로 제시한다. ‘仁’, ‘義’, ‘禮’, ‘智’, ‘聖’, ‘學’, ‘法’ 등이 그러한 것들인데, 노자는 누차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 폐단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그만두고 추구하지 말 것을 역설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법규, 도덕들이 모두 인간의 왜곡된 의식에 의해 구분되고 이름 지어진 소위 ‘非常道’, ‘非常名’이기 때문이다. 좋은 것, 지켜할 것이 생겨나면, 이와 동시에 좋지 않은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생겨난다. 즉 선과 악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시비비가 발생하게 되니, 노자는 그러한 법규, 도덕이 자세하고 복잡할수록 부작용이 생기듯 사회를 더욱더 혼란시킨다고 보았다.

현세의 법규, 도덕 등은 ‘虛’, ‘沖’, ‘無’, ‘弱’, ‘清靜’, ‘無爲’와 같은 도의 범주와

*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부교수

상반되는 ‘有爲’의 행위에 해당한다. 『老子』에서 ‘正’이라는 글자 또한 ‘有爲’의 항목으로 종종 쓰이는데, ‘바르다’의 의미에서 “바르다고 여기는 것”의 의미로 파생되어, 인위적인 법도나 규율 등을 총칭하고 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奇’자로 표현되고 있으며, ‘正’과 ‘奇’는 종종 대립쌍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립구조에서 보이는 ‘正’과 ‘奇’의 관련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며, 심지어는 정반대의 의견이 보이기도 한다. ‘正’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字源』에 ‘正’자의 본의와 파생, 가차의미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먼저 ‘正’은 갑골문에 여러 번 출현하며 모두 ‘정벌’의 의미를 갖는다. 갑골문의 형태 ‘𠄎’는 ‘口(성곽)’와 ‘止(발)’로 이루어져 있어, 성을 향해 공격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즉 ‘정벌’의 의미가 본의인 셈이다. ‘정벌’의 의미에서 ‘바로잡다(糾正)’, ‘평정하다(平定)’, ‘결정하다(決定)’, ‘다스리다(治理)’의 의미 등으로 파생되었으며, 더 나아가 ‘정치(政)’, ‘법칙(法則)’ 등의 의미로 파생되었다.¹⁾ ‘奇’자는 형성자로 ‘大’가 의미를 나타내고, ‘可’가 소리는 나타낸다. 『說文』에 “奇, 異也”라고 하였는데, ‘이상하다’, ‘기이하다’의 본의에서, ‘뜻밖’, ‘경이로운’, ‘미묘한’ 등의 의미로 파생되었다. [ji]로 읽을 때는 ‘偶’의 상대적 의미로 홀수의 의미도 가진다.²⁾ 왕필본 『老子』에서 ‘正’자는 모두 다섯 장에 걸쳐 7회 출현한다. 그 중 4회는 ‘正’자 단독으로 나타나며, 3회는 ‘奇’자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형성되어 있다.³⁾ ‘奇’자는 『老子』에서 모두 4회 출현하며, 2회는 단독으로, 2회는 ‘正’자와 함께 대립쌍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서술의 편의를 위해 단독으로 출현할 경우를 ‘단독구조’로, 대립관계 속에서 출현할 경우를 ‘대립구조’로 명시하기로 한다. 본문은 이러한 ‘正’의 사전적 의미가 『老子』에서 어떤 부가의미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장 전체의 구성과 章旨, 그리고 이웃한 장들과의 의미관계를 통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1) 『字源』 111쪽(<http://www.guoxuedashi.com/kangxi/pic.php?f=ziyuanlxq&p=111>) 참고.

2) 위의 책 421쪽(<http://www.guoxuedashi.com/kangxi/pic.php?f=ziyuanlxq&p=421>) 참고.

3) 실제로 ‘正’이 ‘奇’와 대립쌍을 이루는 경우는 2회이나 ‘奇’와의 관계에서 의미가 파악되어야 하는 경우 1회를 포함하여, 3회의 ‘正’을 함께 고찰하기로 한다.

2. 단독구조에서 ‘正’과 ‘奇’의 의미

‘正’자가 단독으로 출현할 때, 부가 의미보다는 본래의 자의를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먼저 『老子』 8장에 처음으로 ‘正’자가 보이는데, 여기서 ‘正’은 ‘政(정치)’을 의미한다.

居善地	거함에 ‘地’하기를 잘하고
心善淵	마음가짐은 ‘淵’하기를 잘하고
與善仁	사귀에 ‘仁’하기를 잘하고
言善信	말함에 ‘信’하기를 잘하고
正善治	정치함에 ‘治’하기를 잘하고

『老子』 8장은 소위 ‘上善若水’ 장인데, 관련부분은 물을 닮은 道者의 행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正善治”에서 ‘正’은 정사의 의미로, 王弼本을 제외한 기타 판본에서는 모두 ‘政’으로 되어 있다. 『老子』에서 ‘正’과 ‘政’은 보통 혼용되는데, 58장의 “其政悶悶, 其民淳淳; 其政察察, 其民缺缺”에서도 ‘政’은 백서본 『老子』에 ‘正’으로 되어 있다. 의미상으로 보더라도, 세 글자로 구성된 다섯 개의 병렬구는 모두 같은 형식으로, 매구의 첫 글자 ‘居’, ‘心’, ‘與’, ‘言’, ‘正’은 평가 혹은 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건, 행위로 충당되고 있어, ‘正’을 정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45장을 보면,

大直若屈	완전히 곧은 것은 굽은 듯하다
大巧若拙	완전한 솜씨는 서툴게 보인다
大辯若訥	완전한 웅변은 늘변으로 보인다
躁勝寒	조급함은 추위를 이기고
靜勝熱	고요함은 더움을 이긴다
清靜爲天下正	맑고 고요함 이것이 세상의 표준이다

45장은 도의 큼에 대한 현세의 상반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도의 각도에서 진정으로 곧고, 기교 있고, 말을 잘 하는 사람은 현세인들의 기준과 정반대로, 굽

은 듯 하고, 서툰 듯 하며, 늘변으로 보이고, 또한 항상 낮추고, 약해보이며, 텅 빈 것 같고, 있는 듯 없는 듯 고요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道者가 추구하는 것, 혹은 도의 특성인 ‘清靜無爲’가 천하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됨을 나타내고 있다. “躁勝寒”, “靜勝熱” 구는 예로부터 해석이 분분하다. 陳鼓應은 경문의 의미가 통하지 않아 이 구절을 “靜勝躁”, “寒勝熱”로 바꾸어 풀었고⁴⁾, 王弼은 “躁勝寒”을 “躁罷然後勝寒(조급함이 물러간 연후에 추위를 이긴다)”이라고 풀어서⁵⁾ 의미를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혐의를 면하기 어렵다. 어쨌든, 이 구절은 경문의 원래 구조가 의심이 되며, 본장의 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더 이상 본 연구에서 천착하지 않기로 한다. 진고옹과 왕필이 그렇게 풀이한 이유는 결국 ‘清靜’이 천하의 ‘正’이 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니, 핵심은 ‘清靜’이 됨이 분명하며, 여기서의 ‘正’은 ‘옳고 바람직함’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견이 없다. 즉 ‘清靜’이야말로 도의 각도에서 본 바람직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57장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正’자가 사용되고 있다.

聖人云	성인이 말하길
我無爲而民自化	내가 ‘無爲’하므로 백성이 절로 바뀌고
我好靜而民自正	내가 ‘靜’을 좋아하니 백성이 절로 바르게 되고
我無事而民自富	내가 ‘無事’하니 백성이 저절로 부하게 되고
我無欲而民自樸	내가 ‘無欲’하니 백성이 저절로 통나무가 된다

57장은 모두 세 개의 의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기한 부분은 마지막 단락이다. 장 전체의 구성과 내용은 ‘正’과 ‘奇’의 대립쌍을 통해, ‘有爲’에 대한 한계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無爲’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상기한 부분은 바로 성인의 행위를 통해 ‘無爲’할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正’과 ‘奇’의 대립쌍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正’자가 포함되어 있는 ‘我好靜而民自正’구에서 ‘正’의 의미는 위의 45장과 다르지 않다. 즉 도의 각도에서의 ‘바름’, ‘옳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78장에 ‘正’자가 한 번 출현

4) 陳鼓應, 『老子今注今譯』, 北京, 商務印書館, 2003, 243쪽 참고.

5) 임채우, 『王弼의 老子주』, 경기도, 한길사, 2005, 205쪽.

한다.

是以聖人云	그런 까닭에 성인은 말한다.
受國之垢	나라의 온갖 구욕(垢辱)을 받으면
是謂社稷主	이가 사직(社稷)의 주인이라 하고,
受國不祥	나라의 온갖 상서롭지 않은 일을 당하면
是謂天下王	이가 천하의 왕자(王者)인 것이다.
正言若反	진실된 말은 거꾸로 한 말 같다.

“正言若反”은 ‘역설’과 ‘대립’이라는 『老子』 필법에 대한 노자의 직접적인 언급이다. 참 진리의 말은 현세에서 생각하는 것과 정 반대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참 진리의 말은 현세사람들이 들으면 웃어버릴⁶⁾ 정도로 어리석고 터무니없이 들린다. 여기서 ‘正’자는 도의 관점에서 말하는 참 진리를 뜻하며 ‘反’은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正’자는 단독으로 4회 출현하고 있다. 1회가 ‘정치’의 의미로, 3회가 ‘참된 바름, 진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奇’자는 『老子』에서 모두 4회 출현하며, 2회는 단독으로, 2회는 ‘正’자와의 대립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단독으로 출현하는 ‘奇’자는 57장과 74장에 각각 1회씩 보이는데, ‘기이하다’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人多伎巧	사람 사이에 잔꾀가 많을수록
奇物滋起	괴상한 물건이 더욱 많아지고
法令滋彰	법이나 명령이 요란할수록
盜賊多有	도둑이 더욱 많아 진다 (이상 57장)

사람들이 기교를 배우고(人多伎巧) 법령을 반포하는 것(法令滋彰)은 출세를 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로, 현세에서 장려되는 행위이다. 하지만 기교는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거나 각종 악을 행하는 기이한 기물을 만들어 내어 사회를 더욱 어지럽히며, 법령은 많이 만들어 낼수록 백성들이 지키기 힘들고 오히려 그 범망을 피해 더욱더 많은 악행이 행해짐에 대해 말하고 있다.

6) 『老子』 41장: “下士聞道，大笑之，不笑不足以爲道”

若使民常畏死	사람들이 언제나 죽음을 두려워하는데도
而爲奇者	이상스런 것을 하는 자가 있어
吾得執而殺之	내가 그를 잡아 죽인다 한들
孰敢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하겠는가 (이상 74장)

“爲奇者”는 “이상한 것을 하는 자”의 의미이며, 여기서 ‘奇’는 ‘所奇’의 의미로 명사화 되어 ‘이상하게 여기는 행위’를 뜻한다. ‘奇物’, ‘爲奇者’에서 ‘奇’는 모두 ‘기이하고’, ‘이상하다’의 의미이지만 그 내면의미는 모두 현세에서 옳지 않은 물건, 행위, 사건 등을 두고 말하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현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에 대한 부작용으로 생겨남을 알 수 있다.

단독구조에 출현하는 ‘正’과 ‘奇’는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별도의 부가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3. 대립구조에서 ‘正’, ‘奇’의 의미

‘正’은 『老子』에서 두 개의 글자와 대립쌍을 이루고 있다. 하나는 ‘反’이며, 하나는 ‘奇’이다. ‘正’과 ‘反’은 위의 78장에서 살펴보았듯이, “正言若反”이라는 한 구절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正’과 ‘奇’는 몇 곳에서 대립쌍을 이루고 있으며, 그 의미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正-奇’의 대립관계를 중심으로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以正治國, 以奇用兵”(57장)

먼저, 관련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단락을 보면,

以正治國	‘正’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以奇用兵	‘奇’로 병사를 부리며
以無事取天下	‘無事’로 천하를 얻는다.

吾何以知其然哉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됨을 알까
 以此 이 때문이다.

57장의 전체 장지는 ‘無事’, ‘無爲’로 나라를 다스려야 함이다. 판본의 상이를 보면, 郭店, 帛書甲, 帛書乙, 北大本, 河上公, 王弼本에 ‘正’은 모두 ‘正’으로 되어 있으며, 돈황본에만 ‘政’으로 되어 있으나, 서로 통한다. 기타 고금자, 이체자, 통가자 관계로 인한 글자 모양의 차이를 제외하면, 글자 자체의 차이나 구절간 지수의 차이로 인해 의미를 달리 볼 여지는 없어 보인다.⁷⁾

“以正治國”에서 ‘正’의 의미는 아래 구절의 ‘奇’와 대조가 되는 의미로, 표면적으로는 ‘정식’,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하지만 ‘正’의 부가 의미, 여기서는 의미의 포범에 따라 학자들 사이에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즉 ‘正’이 ‘奇’, ‘無事’와 함께 세 가지의 중요한 일에 대한 수단 혹은 방법임을 나타낸다는 의견과 ‘正’과 ‘奇’는 단지 상대적 인식에 의해 생겨난 한 쌍의 대립쌍에 불과하며 진정한 진리는 ‘無事’에 있다는 견해이다. 대구로 이루어진 세 구절의 동일한 형식으로 볼 때, 전자가 타당해 보인다. 河上公은 이에 대해 “몸을 바르게 하는 자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속임수를 부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병사를 다스리게 하고, ‘無事’, ‘無爲’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취하게 한다”⁸⁾라고 하였으며, 陳鼓應은 釋德清의 설을 인용하여 ‘正’을 ‘清靜無爲’라 하여⁹⁾ ‘無事’, ‘無爲’와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는 아마도 47장에서 “清靜爲天下正”이라 한 것에서 기인한 듯하다. 이와 상대적으로 王弼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道’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안정된다. ‘正’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奇’가 일어난다. ‘無事’로서 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앞의 장에서 이르기를 “천하를 취하는 자는 항상 ‘無事’로서 해야 하며 ‘有事’에 미치면 천하를 취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正’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천하를 다스

7) 조은정, 『죽간에 반영된 「老子」의 언어』, 대구, pb출판사, 2019, 101쪽 참고.

8) 김재용, 『「老子河上公注」研究』, 서울, 서강대학교석사논문, 2001, 341-231: “天使正身之人, 使至有國也. 天使詐僞之人, 使用兵也. 以無事無爲之人使取天下, 爲之主.”

9) 陳鼓應, 『老子今注今譯』, 北京, 商務印書館, 2003, 280쪽: “正指清靜之道. 釋德清說: ‘天下國家者, 當以清靜無欲爲正.’”

리기에 부족하여 '奇'로서 군사를 부리게 된다. 대저 '道'로써 나라를 다스리면 근본을 높여 말단을 없애나 '正'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법을 세워 말단을 공격한다. 근본이 서지 않으면 말단이 미미해져 백성들에게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奇'로서 병사를 부림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以道治國則國平, 以正治國則奇正起也, 以無事則能取天下也. 上章云: 其取天下者, 常以無事. 及其有事, 又不足以取天下也. 故以正治國, 則不足以取天下, 而以奇用兵也. 夫以道治國, 崇本以息末, 以正治國, 立辟以攻末. 本不立而未淺, 民无所及, 故必至于奇用兵也.)¹⁰⁾

王弼은 '正'을 '無事'와 대조되는 '有事'로 보고 있으며, 이는 천하를 다스리기에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나라에서 법률을 세워 말단을 다스리는 행위(立辟以攻末)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正'으로는 나라를 다스리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奇'로 군사를 부리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에 따르면, 처음 두 구절인 "以正治國", "以奇用兵"의 의미관계는 가정과 결과로, "'正'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奇'로써 군사를 부리게 된다"의 의미가 된다. 따라서 왕필은 '正'을 '正-奇' 대립쌍의 한 요소로, 영원불변한 진리가 아닌 상대적 인식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有事'의 행위로 보고 있다.

'正'에 대한 위의 두 가지 상반된 의견 중, 아래의 몇 가지 근거로 왕필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먼저 장 전체의 구성을 통해 알 수 있는데, 57장의 이어지는 나머지 두 단락의 내용을 보면,

天下多忌諱	세상에 금하고 가리는 것이 많을수록
而民彌貧	사람이 더욱 가난해지고
民多利器	사람들 사이에 이로운 기물이 많을수록
國家滋昏	나라가 더욱 혼미해지고
人多伎巧	사람들 사이에 기교가 늘면
奇物滋起	괴상한 물건이 더욱 많아지고
法令滋彰	법이나 명령이 요란할수록
盜賊多有	도둑이 더욱 많아진다

10) 임채우, 『王弼의 老子주』, 경기도, 한길사, 2005, 244쪽.

故聖人云 고로 성인이 말하길
 我無爲而民自化 내가 ‘無爲’하므로 백성이 절로 바뀌고
 我好靜而民自正 내가 ‘정’을 좋아하니 백성이 절로 바르게 되고
 我無事而民自富 내가 ‘무사’하니 백성이 저절로 부하게 되고
 我無欲而民自樸 내가 ‘무욕’하니 백성이 저절로 통나무가 된다

이어지는 내용은 두 개의 의미단락이 인과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故聖人云”의 앞부분은 4가지 ‘有事’의 행위와 그에 따른 폐단이 열거되어 있으며, 아래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無爲’, ‘無事’ 해야 함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4가지 ‘有事’ 행위는 사실상 ‘正’이며, 그에 따른 폐단은 바로 ‘奇’의 생겨남이다. 즉 금기사항을 두고(多忌諱), 이로운 기물들을 만들고(多利器), 지혜를 배워 기교를 갖추고(多伎巧), 법률을 세우는 것은(法令滋彰) 세상에서 옳다고 여겨 ‘正’으로 세워지고 권장되어 온 것들이나, 결국은 백성들의 빈곤(民彌貧)과 국가의 혼란(國家滋昏), 그리고 기물이 생겨나고(奇物滋起) 도적이 많아지는(盜賊多有)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현세에서 옳다고 생각한 행위(正)는 곧 심각한 부작용(奇)을 가져오게 되니, 진정한 진리가 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왕필은 “法令滋彰, 盜賊多有”에 대해 직접적으로 “正을 세워 사악함을 없애려고 하나 오히려 기이한 무기가 많이 사용된다”¹¹⁾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57장의 첫 번째 단락에서 “以正治國, 以奇用兵”은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以無事取天下”는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을 연역적 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 구에서 “吾何以知其然哉, 以此”라고 표현함으로써,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바로 그 근거가 됨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老子』의 ‘無事’, ‘無爲’의 각도에서 ‘正’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老子』에서 ‘無事’, ‘無爲’는 인간이 도를 통해 도달해야 되는 궁극적인 가치 기준이자 이상적인 정치형태로, 대립쌍을 가질 수 없는 유일무이한 진리이다. 대립쌍은 현세에서 인간의 의식적인 인지활동에 의해 구분하고, 대상화함으로 만들어진 허구이다. ‘無爲’, ‘無事’와 대조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대립쌍은 ‘有事’, ‘有爲’인 것이다. 따라서 『老子』에서 많은 장들의 서술구조가, 현세에서의 ‘有事’, ‘有爲’

11) 임채우, 『王弼의 老子주』, 경기도, 한길사, 2005, 246쪽: “立正欲以息邪, 而奇兵用多”

의 현상과 폐해에 대해 서술한 다음, 마지막에 ‘無事’, ‘無爲’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위의 57장 역시 그러하며, 아래의 64장도 동일하다.

爲者敗之	억지로 하는 자 실패하게 마련이고
執者失之	집착하는 자 잃을 수밖에 없다
是以聖人無爲故無敗	따라서 성인은 무위함으로 실패하지 않고
無執故無失	집착하지 않음으로 잃는 일이 없다

‘爲者’, ‘執者’는 모두 ‘有爲’의 행위로 그 폐해에 대해 역설적으로 서술한 다음 ‘無爲’할 것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爲者’, ‘執者’는 현세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행위(正)로 장려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실패하고 잃어버리니(奇), 성인처럼 ‘無爲’, ‘無執’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2장과 같은 경우는 여러 쌍의 대립쌍을 열거하여 이것들이 모두 상대적인 인식에 의해 만들어진 ‘有爲’의 산물임을 서술한 다음, 성인과 같이 ‘無爲’ 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한다.

故有無相生	그러므로 ‘有’와 ‘無’는 서로 생겨나게 하고
難易相成	어렵고 쉬운은 서로 이루어 주며
長短相形	길고 짧은은 서로 드러나게 하고
高下相傾	높고 낮은은 서로 기울게 하며
音聲相和	음과 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前後相隨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是以聖人處無爲之事	따라서 성인은 무위로써 이를 처리하고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有無’, ‘難易’, ‘長短’, ‘高下’, ‘音聲’, ‘前後’ 등은 모두 인간 의식으로 만들어낸 상대적 개념이며, 따라서 모든 만물과 현상은 자연 그대로의 ‘無爲’로 존재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서술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 전후 문맥 의미와 『老子』 서술 방식에 근거하면, 57장의 ‘正’과 ‘奇’는 참된 진리로서의 ‘無事’와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단지 현세에서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노력과 그 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어지는 58장의 “正復爲奇”, “善復爲妖”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我好靜而民自正”에서 ‘正’은 언급했듯이, 절대적 가치로서의 올바름을 말한다. ‘청정무위’함이 도의 각도에서의 ‘正’이라면, ‘正’과 ‘奇’의 대립관계 하에서의 ‘正’은 현세에서의 ‘正’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올바른 것으로 여겨서 만들어놓은 별률, 제도 등을 가리킨다.

2) “正復爲奇”(58장)

58장에서 ‘正’은 두 차례 출현한다. “其無正”과 “正復爲奇”구인데, 이 구절 역시 의미가 간단하지 않다. 정확한 의미 고찰을 위해 먼저 장 전체의 내용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其政悶悶	정치가 멍멍하면
其民淳淳	백성이 순박해지고
其政察察	정치가 똑똑하면
其民缺缺	백성이 못되게 된다
禍兮福之所倚	화라는 것은 복이 숨어 있는 것이고
福兮禍之所伏	복이라는 것은 화가 숨어 있다
孰知其極	누가 그 진리를 알 수 있겠는가
其無正	아마도 ‘무정’일 것이다.
正復爲奇	정이 다시 기가 되고
善復爲妖	선이 다시 요가 된다.
人之迷 其日固久	사람이 미혹되었음이 실로 오래되었다.
是以聖人方而不割	고로 성인은 모가 있으나 다치게 하지는 않고
廉而不劌	예리하나 찌르지 않고
直而不肆	곧으나 멋대로 하지 않고
光而不耀	빛나나 눈부시지 않는다.

첫 번째 단락은 정치의 형태와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백성들의 행위에 대해 서술한 것으로, 그 요점은 정치가 ‘悶悶’해야지 ‘察察’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悶悶’과 ‘察察’은 20장에서 이미 대립의미로 출현한 바 있으며¹²⁾, 여기서 ‘悶

悶은 경계가 없이 모호한 모습으로. “규정을 아주 많이 줄이고 통치자의 존재도 의식되지 않아서 통치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어눌하게 보이는 통치를 말한다.”¹³⁾ ‘察察’은 이와 반대로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자세히 살피고 따져서 하는 통치이다. 백성들은 그 규정이 얼마나 자세하고 세밀한지 그 감 독을 벗어나기 어렵다.”¹⁴⁾ 따라서 ‘悶悶’과 ‘察察’은 ‘有爲’와 ‘無爲’의 정치를 형용 하는 대표적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핵심은 당연히 ‘悶悶’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은 ‘有爲’의 행위와 그 폐단에 대해서, 세 번째 단락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無爲’를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57장과 동일하며 『老子』의 전형적인 단락 배치 방식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3쌍의 대립쌍이다. ‘禍-福’, ‘正-奇’, ‘善-妖’가 그것인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립쌍은 ‘有爲’의 전형적인 형태로, 현세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인간 의식의 산물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 3 쌍의 대립쌍에 대해 그 의미의 핵심을 도의 순환성에서 찾고 있다. 즉 ‘禍’가 다시 ‘福’이 되고 ‘福’이 다시 ‘禍’가 되며, ‘正’이 ‘奇’가 되고 ‘奇’가 다시 ‘正’이 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도의 순환, 운동성이 분명하다. 그 전에 장 전체 의미와의 연관성 속에서 일차적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58장의 장지는 ‘無爲’이다. 두 번째 단락은 ‘有爲’의 각도에서 그 행위와 폐단에 대한 내용이므로, 당연히 ‘有爲’의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소위 ‘禍’, ‘福’이라고 하는 것, ‘禍’라는 것을 당하면 슬퍼하고 일상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면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福’이라는 것을 받으면 기뻐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대하고 기도한다. ‘無爲’가 노자의 대표적 정치노선이라면, ‘清靜’은 개인 처세를 대표한다. 항상 비우고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寵辱若驚”이라 했듯이, 노자가 볼 때, 이 둘은 동일하게 마음의 동요를 가져오는 것으로 ‘청정’과 배치된다. 모든 일, 사건은 그 자체로 일어나고 지나가며 순환을 되풀이 하므로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청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12) 『老子』 20장: “俗人昭昭我獨昏昏俗人察察我獨悶悶(세상 사람들 모두 총명한데, 나 홀로 어리송하고, 세상 사람들 모두 똑똑한데, 나 홀로 멍멍하다)”

13) 최진석, 『老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경기, 소나무, 2001, 426쪽.

14) 상동.

사람들은 '복'이라 이름하고 '화'라 이름하고 대상화시키고 사회화시켜 하나의 가치로 고정시킨다. '복'은 좋은 것으로, '화'는 나쁜 것으로, 그래서 복을 받고 화를 면하기 위해 항상 마음을 위축시키고 어떠한 행동이라도 서슴지 않는다. '正'과 '奇', '善'과 '妖'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일은 지나가고 흘러가며 순환을 되풀이 할 뿐이지만, 현세에서 어떤 일에 대해 '正'이니 '奇'니, '善'이니 '妖' 등으로 이름을 붙여 好惡를 나누고 그에 따른 是非를 구분한다. 이에 따라 좋아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은 계속 일어나길 바라고, 싫어하고 그르다고 여기는 것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이상한 행위와 규범을 만들어 낸다. 즉 이 세 쌍의 대립쌍들은 행위나 사건을 그 자체로 보지 못하고 모두 인위적으로 규정해 놓은 '有爲'의 행위인 것이다. 즉 두 번째 단락의 궁극적 의미는 도의 순환성을 깨닫지 못함인데, 그 원인은 바로 인간의 '有爲' 때문이다. 따라서 세 쌍의 대립쌍은 모두 '有爲'의 각도에서 보아야 하며, "人之迷, 其日固久"에서 미혹됨은 바로 이러한 '無爲'의 참 진리와 '有爲'의 폐단을 알지 못함인 것이다.

'正'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其無正"에서 '正'의 의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대부분의 주석에서 '正'을 '定'으로 풀었다. 진고응은 范應元, 朱謙之 등의 주장을 인용하여 이 구절을 "아마도 정해진 준칙이 없는 듯하다"¹⁵⁾의 의미로 풀이하었다. 즉 도의 운동성, 순환성에 입각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복이 변하여 화가 되니 어떤 것 하나를 꼭 집어서 궁극적인 진리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왕필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누가 잘 다스림의 진리를 알겠는가? 아마도 내세울만한 正이 없고, 이름 붙일만한 形(형체)이 없어야만 悶悶하게 천하가 크게 동화될 것이니 이것이 그 진리인 것이다.(言誰知善治之極乎, 唯无可正舉, 无可形名, 悶悶然而天下大化, 是其極也。)¹⁶⁾

15) 陳鼓應, 『老子今注今譯』, 北京, 商務印書館, 2003, 284-285: "它們並沒有定准, 指福、禍變換無端。范應元說: '無正, 猶言不定也。' 朱謙之說: '其無正, "正"讀爲"定", 言其無定也。《玉篇》: "正, 長也, 定也。" 此作定解。言禍福倚伏, 孰知其極? 其無定, 即莫知其所歸也。"

16) 임채우, 『王弼의 老子주』, 경기도, 한길사, 2005, 248쪽.(『도장집주』 본에는 "唯无可正舉, 无可形名" 구절이 "唯无可正舉, 無形可名"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따르기로 한다.)

위의 주에 의하면 왕필은 '正'을 57장과 동일하게 '옳다고 여겨서 의식적으로 만든 법도, 제도, 규율' 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正'이 없어야만(無正) '悶悶'연하게 천하가 동화되고 바로 이러한 것이 그 진리(極)라 하였으니, 왕필의 해석대로라면, "其無正"의 의미는 "아마도 '無正'에 있을 것이다"¹⁷⁾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서 '無正'의 의미는 사실상 '無爲', '無事'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57장의 연속선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볼 때, 왕필의 일관된 해석이 타당해 보인다. 57장과 58장은 전체 의미 구조가 유사하다. 모두 '正'과 '奇'를 대립쌍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립쌍(有爲)의 상대적 구분에 대한 한계와 폐해, 그에 따른 '無爲'로의 귀결로 이어진다. 동일한 의미와 장지를 가진 두 개의 연속된 장에 3개의 '正'자가 출현하는데, 진고응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두 다른 의미, 즉 하나는 '無爲'와 같은 의미의 '清靜'(以正治國)으로, 하나는 '定'(其無正)으로, 하나는 '正'과 '奇'의 대립쌍(正復爲奇)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正'을 모두 '有爲'의 행위로서 풀고 있는 왕필의 일관성 있는 해석에 미치지 못한 듯하다.

다음으로 '正復爲奇'에서 '正'과 '奇'는 대립쌍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正'은 "其無正"의 '正'과 동일하다. 즉 사람들이 옳다고 여겨서 만들어 놓은 것, 예를 들어 보편적인 도덕 규율이나 법도 등임을 알 수 있다. 현세에서 '正'은 절대적으로 옳은 가치로 여겨져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 때문에 '奇'가 생겨나니, '正'은 의식적으로 만들어 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니 만들어서는 안 되는 '有爲'의 행위인 것이다. '善'도 마찬가지이다. '正', '善'이 모두 의식에 의해 가공된 '有爲'의 행위이지만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인양 받들며 살고 있으니 미혹됨이 심함이 분명한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서 살펴볼 것이 있다. "正復爲奇"의 자의적 의미는 "正'이 다시 '奇'가 된다"가 된다. 이는 마치 '正'에 해당하는 일이 시간이 흘러 '奇'로 변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正'의 일 자체가

17) 임채우는 왕필주에 근거하여 "其無正" 구절을 "그 바름이 없으니"로 해석하였고(임채우, 『王弼의 老子주』, 경기도, 한길사, 2005, 248쪽 참고), 김학목은 "아마도 바로잡는 것이란 없는 것이겠지"라고 풀이하였는데(김학목, 『老子 도덕경과 王弼의 주』, 서울, 홍익출판사, 2012, 281쪽 참고), 모두 뜻이 통하지 않는다.

'奇'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正'을 세우면 '奇'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善'을 세우면 '妖'가 자연적으로 생겨남을 말한다. 다시 말해, '正'이 '奇'가 되고 '奇'가 다시 '正'이 됨은 도의 순환론적 관점에서 잘못 파악한 것이며, 여기서 말하려는 핵심은 '正'이라는 '有爲'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奇'도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에서 지적했던 '有爲'에 대한 해결 방안을, 첫 번째 단락과의 수미쌍관의 방식을 통해 다시 한 번 '無爲'에서 찾고 있다. "方而不割", "廉而不剌", "直而不肆", "光而不耀"에서 '方', '廉', '直', '光'은 모두 성인의 행위와 품성을 나타내는 글자로,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 백성이 저절로 동화되도록 하지, 의도적으로 '方', '廉', '直', '光'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항목을 만들어 백성들을 해(割)하고, 찌르고(剌)하고, 마음대로(肆)하고, 눈부시게(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심은 그것을 옳다하여 의도하지 않고 그냥 자연그대로 행하고 따르게 함이다. '禍', '福', '正', '奇', '善', '妖'와 같은 개념, 혹은 이름은 모두가 만들어진 것이다. 모든 사물과 사건은 있는 그대로의 현상일 뿐 이에 대한 어떠한 의식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시비, 더 나아가 선악으로 규정하여 상벌이 따르게 하는 일체의 과정이 필요 없다. 이것이 바로 '無爲'인 것이다.

요컨대, '正'과 '奇'의 대립구도에서 '正'은 57장, 58장에서 모두 3회 출현한다. 이 두 장은 동일한 내용구성과 장지를 가지고 있다. 즉 첫 번째 단락에서 '有爲'와 '無爲'의 대비를 통해 '無爲'할 것을 제시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 '有爲'의 행위와 그 폐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그 해결책으로 다시 한 번 '無爲'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구성은 노자의 대표적인 장 구성방식이다. 3회의 '正'자는 왕필의 견해를 따라, 모두 현세에서 옳다고 여겨져 만들어진 정책, 법규 등을 의미하며 '奇'는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역설과 부정은 『老子』의 대표적 서술 방식이다. 노자는 “正言若反”이란 표현으로, 이러한 서술방식뿐만 아니라 현세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참 진리와의 괴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다. 현세에서의 도덕규범이나 각종 법률조항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할 진리이지만, 노자는 이를 ‘有爲’ 행위로 간주하여 철저히 부정한다. ‘仁’과 ‘義’에 해당하는 품성과 행위는 본래 도의 본성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품성과 행위가 ‘仁’, ‘義’로 이름 붙여지고, 개념화 되는 순간, ‘不仁’과 ‘不義’가 생겨나고 이에 따른 시비와 선악이 구분되어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正’ 역시 마찬가지로, 현세에서 옳게 여기는 것을 만들어 ‘正’이라고 이름 붙이면 ‘不正’이 생겨나게 되니, 이가 곧 ‘奇’인 것이다.

‘正’은 『老子』에서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正’은 본래 ‘정벌하다’의 의미로, 갑골문에서 자주 보이지만, 그 이후로는 주로 ‘바로잡다’, ‘평정하다’, ‘안정시키다’, ‘정치’ 등의 파생의미로 사용된다. 『老子』에서는 이러한 파생의미 외에, 『老子』의 텍스트 특성이 가지는 부가의미도 존재한다. 『老子』에 출현하는 7개의 ‘正’자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정사

- ① 正善治 정치함에 ‘治’하기를 잘하고 (8장)

나. 절대적인 바름, 진리: ‘清靜’, ‘無爲’.

- ① 清靜爲天下正 맑고 고요함 이것이 세상의 바름이다(45장)
 ② 我好靜而民自正 내가 ‘靜’을 좋아하니 백성이 절로 ‘正’하고(57장)
 ③ 正言若反 진실된 말은 거꾸로 한 말 같다.(78장)

다. 상대적인 바름, 진리: 옳다고 여기는 것(법칙, 규율 등)

- ① 以正治國(이기용병) ‘正’으로 나라를 다스리고(57장)
 ② 其無正 아마도 ‘無正’일 것이다.(58장)
 ③ 正復爲奇 ‘正’이 변하여 ‘奇’가 되고 (58장)

'正'은 '政'과 혼용되므로, 이것을 제외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절대적인 '正'과 상대적인 '正'인데, 전자는 도의 각도에서의 '正'으로, '清靜', '無爲'를 의미하며, 후자는 현세의 각도에서의 '正'으로 진리로 여겨 만들어 놓은 각종 법칙, 규정 등을 의미한다. 후자는 '有爲'의 행위로 그에 따른 부작용인 '奇'가 생겨나니, '正'과 '奇'의 대립구조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奇'는 『老子』에서 4회 출현한다. 단독으로 출현하거나 '正'과의 대립구조에서 출현하는데, 모두 그 본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립구조에 보이는 부가의 의미는 '正'에 대한 부작용으로, 각종 법률, 규범 등의 '有爲' 행위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악과 그에 대한 미봉책으로 볼 수 있다.

〈參考文獻〉

- 吳澄, 『道眞經吳澄注』,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0.
林希逸, 『老子虞齋口義』,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9.
範應元, 『老子道德經古本集注』,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0.
高明, 『帛書老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1996.
高亨, 『老子註釋』, 鄭州, 河南人民出版社, 1980.
林語堂, 『老子的智慧』, 西安,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04.
許抗生, 『帛書老子註釋及研究』,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82.
夏旦大學哲學系老子註釋組, 『老子註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7.
朱謙之, 『老子校釋』, 北京, 中華書局, 1984.
陳鼓應, 『老子今注今譯』, 北京, 商務印書館, 2003.
馮友蘭, 『中國哲學簡史』, 北京, 新世界出版社, 2004.
김재용, 『「老子河上公注」研究』, 서울, 서강대학교석사논문, 2001.
羅佑權, 『成玄英의 「老子義疏」研究』, 서울, 고려대학교박사논문, 2011.
吳相武, 『老子河上公, 想爾, 王弼三家注比較研究』, 北京, 北京大學(博士論文), 1996.
林雄洲, 『楚簡本, 與帛書本, 傳世本, 老子的文體關係研究』, 長沙, 湖南師範大學 碩士論文, 2008.
안동립 역주, 『장자』, 서울, 현암사, 1993.
조은정, 『죽간에 반영된 「老子」의 언어』, 대구, pb출판사, 2019.

- 최진석, 『老子的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경기, 소나무, 2001.
최진석, 정지욱 역, 『老子義疏』, 경기, 소나무, 2007.
김학목, 『老子 도덕경과 王弼의 주』, 서울, 홍익출판사, 2012.
임채우, 『王弼의 老子주』, 경기도, 한길사, 2005.
김용옥, 『老子和 21세기』, 서울, 통나무, 1999.
이경무, 「老子 철학에 있어서의 역설과 부정」, 『범한철학』 제59집, 2010.
안희진, 「『老子』, 그 역설의 문학을 논함」, 『중국학』 제51집, 2015.
오진탁, 「『도덕경』에서 ‘正言若反’의 철학적 함의」, 『인문학연구』 2·3집합본호, 1996.
오테석, 「老子 도덕경 기호체계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중국어문학지』 제49집, 2014.
오테석, 「역설의 즐거움: 노장 존재론의 부정성」, 『중국어문학지』 제51집, 2015.
이소동, 「『老子』 ‘道’, ‘有’, ‘無’의 관계에 대한 문맥적 고찰」, 『중국문학연구』 70집, 2017.
이소동, 「『老子』 대립구조의 유형과 함의 분석」, 『중국문화연구』 42집, 2018.

〈Abstract〉

A Study on the Additional Meaning of ‘正’ and ‘奇’ in 『LAOZI(老子)』

Lee, So-Dong

‘正’ is used in several meanings in 『LAOZI(老子)』. ‘正’ originally means ‘punish’, and is often seen in the Oracle-Bone Inscriptions, but since then it is mainly used as a derivation meaning of ‘get right’, ‘comfort’, ‘stabilize’, and ‘politics’. In 『LAOZI(老子)』, besides this derivation meaning, there is also an additional meaning of the textual character of 『LAOZI(老子)』. The meanings of the seven ‘正’ characters in 『LAOZI(老子)』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politics
正善治(Chapter8)
- 2) Absolute righteousness, truth
清静为天下正(Chapter5)/ 我好静而民自正(Chapter57)/ 正言若反(Chapter75)
- 3) Relative righteousness, truth

以正治国(Chapter57)/ 其无正(Chapter58)/ 正复为奇(Chapter58)

‘正’ is used interchangeably with ‘政’, except that there are two main categories: absolute ‘正’ and relative ‘正’. The former is ‘正’ at the angle of TAO(道), meaning ‘清静’, ‘无为’. The latter refers to various laws, regulations, etc., which were made to be truth in the temporal angle. The latter is the act of ‘有为’, which causes side effects, ‘奇’. It appears in the oppositional structure of ‘正’ and ‘奇’. ‘奇’ appears four times in 『LAOZI (老子)』. Appears alone or in a confrontation with ‘正’, both do not deviate much from its original meaning. The additional meaning in the opposition structure is a side effect of ‘正’, which can be seen as a social evil caused by the act of ‘有为’ such as various laws and norms, and the remedies for it.

Key words: 『LAOZI(老子)』, ‘正’, ‘奇’, ‘有为’, ‘无为’

이 논문은 2019년 10월 16일에 접수되어 2019년 11월 7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11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